

양준혁 KBS 예능 '남자의 자격' 합류



야구선수 출신 양준혁이 KBS 2 '해피선데이'의 '남자의 자격'에 7의 멤버로 합류한다. 신원호 PD는 14일 "양준혁을 새 멤버로 영입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합류 시기는 아직 결정이 안됐다. 스케줄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양준혁은 작년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성민의 자리를 대신해 기존 멤버 6명과 함께 프로그램을 이끌게 된다.

신 PD는 "사람 냄새가 나서 선택했다"며 "방송에 별로 노출이 안된 상태고 연령 면에서도 허리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연령대가 적합한 분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배우 이시영, 아마추어 복싱 출전



배우 이시영(29)이 전국 아마추어 복싱 대회에 출전한다. 14일 이시영의 소속사 지앤지프로덕션에 따르면 이시영은 15~19일 경북 안동에서 열리는 제7회 전국 신인 아마추어 복싱 선수권 대회 여자부 48kg 체급에 출전한다. 1982년생으로 올해 29세인 이시영은 참가자 가운데 최고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영은 지난해 여자 복싱선수를 주인공으로 한 단막극에 캐스팅돼 복싱을 처음 접했다. 이후 드라마는 무산됐지만, 이시영은 복싱에 재미를 붙여 꾸준히 연마해 지난해 11월 사회인 복싱대회인 KBI 전국 생활 체육 복싱대회에 출전, 우승했다.

이계만 교수 시·도의회의장협 자문위원



이계만 조선대 정책대학원장(사회과학대학 행정복지학부)이 최근 제3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011년 4월부터 2년이다. 정책자문위는 2002년에 출범한 기구로서 지방자치 저해요소의 체계적 발굴 및 논리적 대응자료 개발, 자치입법·행정·재정 등 분야별 지방자치 발전과제 연구,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 연구와 협의회장의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美 전설의 재즈 드러머 조 모델로 별세



전설적인 재즈 드러머 조 모델로(Joe Morello)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 북쪽에 있는 자택에서 숨졌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향년 82세.

모델로는 1950~1960년대에 12년 이상 데이브 브루벡 콰르텟의 드러머로 활동하면서 재즈 고전이 된 '테이크 파이브(Take Five)'나 '블루 론도 아 라 투르크(Blue Rondo a la Turk)' 등 연주에 참여했다.

내방

▲양봉환(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씨

“영암 서킷에서 맘껏 달리고 싶어요”

한국인 첫 F1 드라이버 유력 최명길 씨

“한국인 최초의 F1(포뮬러원) 선수가 돼 영암 서킷을 달리고 싶습니다.” 수화기를 통해 전해지는 최명길(26·Recardo Bruins Choi·인디고 레이싱 팀)씨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다소 들떠 있는 듯했다.

최씨는 한국인으로는 드물게 세계 모터스포츠계에서 이름이 알려진 '실력과 드라이버'로, F1 무대에 가장 근접한 한국인으로 꼽힌다.

최씨는 한국에서 태어난 뒤 생후 4개월 때 네덜란드로 입양, 카트 자동차 수리업을 하는 양아버지의 도움으로 5세

부터 카트를 타며 레이서의 꿈을 키웠다. 19세 때인 2004년 포뮬러 르노대회를 통해 포뮬러에 공식 데뷔한 뒤 지난 2007년 독일 F3에서 2차례 우승을 차지했다.

그는 지난 2009년 국내 입국, 레이싱 팀인 '인디고 레이싱팀'에서 활약중으로 '2010년 코리아 모터스포츠 그랜드 페스티벌 GT통합클래스'와 '2009년 CJ 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5라운드 슈퍼 3800 클래스'에서 우승 트로피를 거머쥘기도 했다.

그는 아직 한국어가 서툴지만 한국에

대한 사람은 유별난 것으로 유명하다. 유럽에서 활약할때만 해도 당시 자신의 경주용 차 결편을 단군·광개토대왕·세종대왕·이순신 등 한국 위인들의 이름으로 장식하고 헬멧에 태극기를 그려넣는 '애국심'으로 화제를 모았다. 그만큼 코리아 그랑프리에 대한 관심도 클 수밖에 없다. 모터스포츠 불모지인 한국에서 F1 및 모터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는 의지가 대단하다.

그는 “F1이 얼마나 흥미진진한 대회의지 미디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한국에서도 추후와 올림픽처럼 인기 스포츠대회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또 “F1 대회가 오랫동안 치러지기 위해서는 대회를 지지하는 스폰서 또는 파트너를 확보하는 게 절실하다”면서 성공적인 F1 대회를 위한 기업들의 역할도 주문했다.

지난 2일 '2011 F1 코리아 그랑프리 홍보대사'로 위촉된 최씨는 세계 최대의 스피드 축제 F1 대회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지방 소도시 영암에서 치러지고 F1 드라이버들이 달리는 그 서킷(circuit·경주용 트랙)에 홍보대사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무척 자랑스러워했다. “2011년 영암에서 열리는 F1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힘 닿는대로 돕겠습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충청의 별’ 중국에 F1 알린다

이장수 프로축구감독 전남도 명예홍보대사에

‘충청의 별’ 이장수(사진 가운데) 중국 프로축구 광저우 헝다팀 감독이 14일 전남도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전남도는 F1대회 홍보와 관광객 유치에 위해 이장수 중국 프로축구 감독을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촉 기간은 오는 2013년 3월 10일까지로 2년간이다.

이 감독은 10월 14일부터 3일간 영암에서 열리는 F1 코리아 그랑프

리를 중국에서 적극 알리는 역할을 하면서 중국 관광객 및 기업들의 전남 유치에도 힘을 쏟게 된다.

이 감독은 지난 1998년부터 중국으로 건너가 충칭 리판, 칭다오 피지우 등 중국 프로축구팀 감독을 역임하면서 중국 FA컵 2회 우승과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해 ‘중국판 히딩크’ ‘충청의 별’ 등으로 명성을 높였다. 광저우 헝다는 지난해 그가 감독으로 부임된 2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벌이며 올해 1부리그로 승격된 팀이다. 이장수 감독은 “전남의 홍보대사로 위촉돼 기쁘다”면서 “최근 중국 내에서 한국 투자를 고려하는 기

업이나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남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지원장학회, 93명에 1억3600만원



(재)지원장학회(이사장 이응룡·남도건설 대표이사)는 지난 12일 광주시 남구 월산4동 남도건설 회의실에서 ‘제19회 지원장학회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장학생 93명에게 총 1억 36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장학생은 전남대 의대 정준영씨 등 대학생 43명과 광주 대광여고 박주연 양 등 고등학생 50명 등 총 93명이다.

지원장학회는 지역사회 발전과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지난 1993년 설립, 매년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품행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까지 모두 1092명에게 9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광주일보 5기 독자위원회 출범



왼쪽부터 김병인·조연술·조미옥·이묘숙 위원,유재철 광주일보 대표이사, 임선숙·이철갑·최병렬·경훈 위원.

광주일보 제5기 독자위원회가 14일 오전 동구 금남로 2가 광주일보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병인 서강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김현석 광주 대 일본어학과 교수, 경훈 (사)행복문화사업단 부부장, 이묘숙 송은갤러리 관장, 임선숙 변호사, 이철갑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 조미옥 나주 봉황중 교사, 조연술 광주테크노파크

가전로봇센터장, 최병렬 광주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 등 본사가 위촉한 독자위원 9명이 참석했다. 이철갑 교수가 위원장으로, 이묘숙 관장이 총무로 선임됐다. 제5기 독자위원회는 앞으로 1년 동안 6차례의 모임을 갖고 광주일보의 제작에 대한 평가와 비판, 조언을 하게 된다.

본사 유재철 대표이사는 “거침없는 비판과 제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

“27년만에 전남대 재입학 했습니다”

프로골퍼 신지애 부친 제섭씨 수의학과에

세계 여자골프의 지존 신지애(23)의 아버지 신제섭(50)씨가 늦깎이 대학생이 됐다. 신씨는 지난 2일 전남대 수의학과 4학년에 재입학했다. 1980년 입학해 3학년을 마치고 제적된 지 27년 만에 다시 대학생이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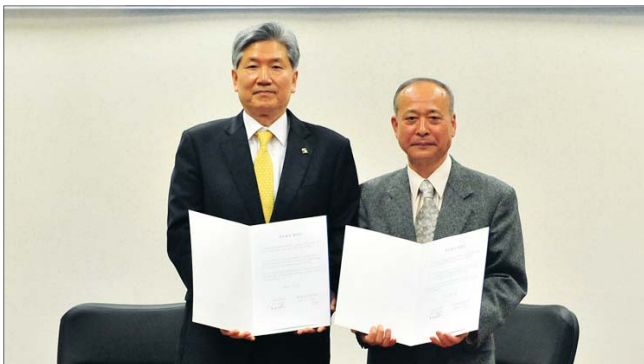
그는 “젊은 시절 수의학과에 다녔던 시간이 헛된 시간으로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늦었지만 다시 펜을 들게 됐다”며 “지애가 적극 지지해 줘 큰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다시 대학생이 된지 2주가 지났지만 마음 한편에는 작은 부담감이 남아 있다. 당시 함께 공부를 했던 선배들과 동기들은 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30여년 차이 나는 후배들과 함께해야 하는 학교 생활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움에 대한

열의만큼은 20대 못지않다. 신씨는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살아왔으며 수의학과 재학후인 1986년에는 본래의 꿈을 찾아 신학대에 편입했다. 이후 대학원까지 졸업한 그는 목사의 길을 걷기도 했다. 또 아버지로서 딸을 세계적인 프로골퍼 선수로 키워냈다.

그의 다음 목표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다. 신씨는 “대학원에서 지애를 가르치며 배운 골프에 대한 함께해야 하는 학교 생활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

조선대-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 협약



조선대학교(총장 전호중·왼쪽)가 새로 출범한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성대)과 손잡고 문화전문인력 양성과 지역문화산업 육성에 나선다. 전 총장과 노 대표이사는 14일 오후 조선대 소회의실에서 문화예술 분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조선대 제공〉

생활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동창·동문회

▲조선대학교 조우회 월례회(회장 민경채)=18일(금) 오후 6시 영광굴비 식당. 010-8506-7346.

▲동신고 17회 동창회(회장 정재근) 졸업 25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박상열) 사무실 현관식=19일(토) 오후 7시 동구 수기동 13-8번지. 010-7573-0000.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66만 전·외국 출신 모임=전·외경회 결성. 019-277-0007.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

애차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 방문·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바꾸기 등(실버에 한함). 062-365-8228.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무료 상담=보호가 필요한 아동 일시보호 상담.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062-222-1095.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 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 062-363-2240.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062-652-1366, 062-

434-1366 www.gene-korea.com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24시 전화 상담 전국 공통 1588-9191. 광주 062-223-9191. 면접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법 검찰청 민원실 2층.

▲광주노인보호전문기관=24시간 노인학대 상담 및 신고 전화 내용 비밀 보장 1577-1389.

▲광주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 지원 및 심리 치료 등 원소

통 서비스. 062-232-1375, www.forchild.or.kr

▲중고컴퓨터 기증하실 분=광주·전남도내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 장애인에게 중고 PC를 기증하실 개인, 단체, 기관 환영. (사)장애인 먼저실천 광주·전남운동본부. 062-511-0030, 010-4666-2226

▲광주생명의 전화(실장 직속) 24시간 전화상담(1588-9191)=동구 지산동 716-30로 이전(지산교회 옆 교육문화관 1층)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일반 면접 상담, 위기 가족문제, 자녀문제, 자살 등 상담. 062-223-9191, 062-232-9192.

▲무로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 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 등으로 음향장비(앰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광주장애인인권센터 무료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인권문제연구소. 062-369-0420(1577-5364)

▲습관성도박(경마, 주식, 복권, 인터넷도박, 성인오락 등)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인터넷으로 주례신청=검색창에 '주례나라'를 검색하면 어디서나 결혼식에 겸직한 주례선생님을 모실 수 있음(단, 제주도·울산시 제외) www.jure.ck.kr, 061-245-3350.

▲프르네 학습증진컨설팅 저소득층자녀 무료상담=학교부작응, 성적부진, 성적저하, 교우관계, 정서장애, 게임중독 등. 010-6392-7137.

부음

▲최만옥씨 별세 훈장(C&M 산업 개발 사장)·문기(서울시한강사업본부)·용대(서울 동대문구청)·영금씨 부친상=발인 16일(수) 그린장례식장 2층 9분향소. 062-250-4409.

▲김동호씨 별세 영대·영수·영진·윤자·정자씨 부친상=발인 16일

(수)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박규현씨 별세 영찬·영도·영

삼·영진·영구·영순·영숙·영희씨 부친상=발인 15일(화)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謹	故人の冥福을 빕니다	弔
故人 박갑순 님(여/88세)	故人 최만국 님(남/80세)	
子/子婦: 노동진/사선희, 양진/조미숙, /김삼희, 노홍성/김숙희 女/婿: 노윤심/윤영중, 영금/황광연, 선희/정인중 • 발인: 3월 15일 08시00분 • 장지: 영락공원 • 연락처: 250-4410	子/子婦: 최훈창/김화란, 문기/이영자, 용대/김나미 女/婿: 최영금/정광대 • 발인: 3월 16일 00시00분 • 장지: 영암 학산 선영 • 연락처: 250-4409	
그린장례식장 24시간 대기 (062)250-4455		

謹	삼가 故人の冥福을 빕니다	弔
故 김기배 님(여/96세)	故 이남길 님(남/76세)	
子/子婦: 임미자, 윤순형/문인숙 孫/노길준, 광영/김명선, 순옥, 영배/장숙희 女/婿: 윤방실/최형기, 방실/정길봉 • 호실 특201호 • 발인: 3월 16일 • 장지: 장진공동 선영 • 직통: 227-4381	子/子婦: 이철형/김남숙 女/婿: 이지숙/노형철 • 호실 101호 • 발인: 3월 16일 • 장지: 영락공원 • 직통: 227-4385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		